

직업적 태도 및 간호원의 복장

—간호윤리 정신에 입각하여—

<전본협회장> 이 금 전

직업적 태도

◇ 직업의 정의 ◇

전문적 교육을 받고 국가에서 간호행위의 자격인정을 받으며 평생적으로 하되 간호원회를 통하여 끊임없는 연구로서 그 전문부문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업이다.

◇ 태도의 정의 ◇

태도는 어떤 특정한 대상의 지식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판단을 내린다음 비교적 쉽게 반응(變容)될 수 있으므로 실천을 기대할 수 있는 심적 경향이다.

직업적 태도에 관한 것을 문답식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간호사업을 목적으로 간호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중심실리와 어떤 외부적 동기에 충격을 받고 간호학교를 지원하여온 학생들이 처음에는 저들의 기에에 어그러진다고 실망하는 일이 많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간호정신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주어 정당한 이해와 심적안정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이렇게하여 차차 태도를 변경시켜주는 것이 교육의 요소이다.

本稿는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중앙의료원에서 開催한 看護社會科學教育「세미나」에 發表된 것임을 밝혀둔다. <編輯部註>

2. 신입생들의 환경적 조종은 누가 가장 잘 도와주겠는가?

신입생시절의 가장 접촉이 많은 사강선생과 학교교사일 것이다.

3. 간호윤리는 누가 가르치는 것이 제일 합당한가?

병실실습할 때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를 가장 많이 목격하는 수간호원이 그 상태를 잘 알므로 그 실예를 들어서 윤리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

4. 졸업반학생들의 윤리는 누가 가르치는 것이 합리적일까?

간호학과과장이나 간호원장이 학교를 대표하여 일학년에 배운것을 복습도 시키고 또는 졸업전후에 가질 직업적태도와 직업선택과 또는 취직과 퇴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좋을 듯하다.

5. 간호란 어떠한 직업인가?

직업에는 육체의 힘으로만 되는것도 있고 정신적힘으로만 되는것도 있으나 간호는 체력과 지능을 결합하여야만 되며 더우기 매매도 할 수 없고 대가도 정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일이라

는 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존엄성이 있는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져야 한다.

6. 최근 한국간호교육계에서 새로이 찾아볼 수 있는 경향은 무엇인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속담은 실재가 유력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며 간호는 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니 의학적 이론에만 치중하지 말고 임상실습을 충분히 하라는 나이팅게일의 말도 있지마는 최근 미국인디애나대학 간호교수단의 임상교육에 관한 워크숍이 있던 후 새로운 임상교육을 실천하는 경향은 실로 간호교육발전상 커다란 원동력이 아닐 수 없다.

7. 환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진 간호원을 환영하나?

항상 명랑한 태도로 환자들을 자기 친척같이 친절히 대해주고 간호해주는 사람이다. 집을 떠나 외롭고 병든 환자는 동정심을 가지고 봉사적 정신으로 인내성있게 간호해주던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평안을 얻어서 병도 속히 낫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간호원의 수고도 가치가 있고 병원의 명예도 좋아진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개인의 무슨 사정으로인지 모르나) 인간미가 없는 찻쌀한 간호는 기계와 같이 차디찬 것이며 또 무엇으로나 환자에게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환자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간호원의 인격이 떨어지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야비한 행동으로 배척을 받게 된다.

8. 직권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진 간호원을 신용하는가?

간호원들을 통솔하는 직권자들은 의료

와 간호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명령을 정확하게 지키고 언제나 신뢰할 수 있으며 또는 직업적 한계를 분명히 하여 월권행위를 하지 않으며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간호원을 원한다.

9. 동료간에는 어떤태도로 일을 해야 하는가?

바쁠때는 서로 도와주고 동료의 어려움도 이해할 줄 알며 필요없는 말은 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으며 동료가 승진이 될 때에는 칭찬을 해주고 저속한 언사를 쓰지 말 것이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의 스터워야 한다.

10. 기관(병원)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진 간호원을 채용하고자 하는가?

병원규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자, 병원이나 환자에 관한일을 아무에게나 누설하거나 헐뜯을 하지 않을자.

환자에게 친절하며 좋은 간호를 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을만 한자.

진실되고 양심적이며 모든 들뜸을 절약하여 병원경제상 손해를 입히지 않을 자.

11. 환자방문객들은 어떤 태도로 접대하여야 하는가?

자기의 친척같이 친절히 안락하여 기분 좋게 방문하도록 한다. 환자의 일반상태는 물론 대답할 수 있으나 진단이나 예후같은 의료면에 관한것은 주치의에게 미루어야 한다. 혹시 사베뎀을 주는 경우에는 절대로 받지 말 것이며 강경히 된다면 간호원장을 통하여 받아서 적당히 처리하게 할 것이다. 환자나 방문객들에게 간호원은 사례품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은 그것을 받을 필요도 없거나 마지못하여 받는

<직업적 태도>

다하더라도 그 곁에 빈곤한 환자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사례품을 출만한 경제력이 없으므로 불안한 잠을 갖게되며 또는 자기는 사례를 못한 관계로 간호에도 등한히 해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고로 이런 폐단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 결 론 ◇

간호직업에 관한 태도(심적경향)는 항상 이 사업을 질적으로 향상과 발전을 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 환자들에게 좀 더 좋은 봉사를 하며 동시에 간호원의 사회적 지위가 국내 국외에서 더욱 견고해져야 하겠다

간호원의 복장

◇ 유 래 ◇

간호복장은 중고시대 종교계에 투신한 수녀들이 봉사의 상징으로 입던 수녀복을 모방하여 만들어 입으면서 점점 그 제도를 좀 더 일하기에 간편하고 보기에 아름답게 변하여 현재 우리가 입는 복장에 이른 것이다.

◇ 모방한 사람과 복장의 모양 ◇

독일 카이서스웰에 있는 현대간호원 양성소에서 1836년 10월에 Mrs. Frederika Munster Fliedner가 처음으로 수녀복을 모방하여 입은 것으로 본다. (간호사 "Nursing History in Brief"의 55와 57페이지 참조). 제복은 기장이 길어 마루까지 끌게 되었고 색은 흑색이며 칼라는 백색이며 높고 뽕뽕하고 소매도 길고 소매끝에는 회고 뽕뽕한 카후를

항상 끼우고 있다가 일할 때는 빼내고 하며 켈도 흰색이나 끈이 있어 턱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

◇ 그 후에 모양이 약간 변함 ◇

1867년에 나이팅게일과 그의 간호원들이 입고 있는 사진을 같은 책 75페이지에서 보면 그 제도가 현재 간호학교 학생들이 입는 복장모양과 흡사하다. 그러나 소매가 길고 앞치마보다 제복의 기장이 길다.

◇ 현대화 할 ◇

1920년까지 일부간호에게 뽕뽕한 칼라는 고상한 직업적태도가나고 옷이 길어서 발이 보이지 않는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켈에는 레스룬 달아 공돌여 만든 것이라 빨아서 태리가 끈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1910년부터는 일하기에 편리하고 세탁하여 태리기 쉽도록 간편하게 만들고 항상 검은색이나 회색으로 입던 제복을 흰색으로 고쳤으며 각 학교에서 제복 모양을 자유로 선택하지만은 학교원과 학교장은 각 학교가 독특한 것으로 지정하였다. 켈의 검은색은 군대 모양으로 제복을 표시하는 의미로 붙이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높은 칼라, 소매끝에 카후, 긴소매, 긴옷의 치장과 유니폼의 검은 색을 회색으로 완전히 변하였으나 학생복은 항생약(抗生藥)간의 색 있는 것을 선택하여 입히도록 하였다.

사명감에 의하여 박애정신으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의 간호사업은 무엇보다도 그 체면을 굳게 유지하여야 되겠다.

간호사업을 할 때 채려야 할 복장은 켈,

유니폼, 양말, 구두, 졸업한 학교의 편이나 소속간호원회의 편이다.

근무 중에는 그 외 것을 장식함은 인정되지 않는다. 복장 중에 어떤 것으로나 간호직업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일반생활 복에 관심을 가지고 미(美)와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것 이상으로 우리의 복장도 큰 관심을 갖고 옷차림을 하여,

1. 직업상 위신을 갖추고 직장에 나가야 하며,
2. 누구에게나 상쾌한 기분을 갖게하며,
3. 특별히 환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정신상 위안이 되게 하며,
4. 복장을 항상 정하게 채려서 위생적이어야 하며 환자와 그 친척과 친구들에게 교육의 요인이 되도록 해야한다.

◇ 켈 ◇

쨌은 복장의 매우 소중한 부분이니 색 입은 상징하는 것이다.

1. 쨌은 매주 한번씩 정한것으로 갈아서 쓸것.
2. 줄을 강하게 하여 받듯이 접어서 받듯이 쓸 것.
3. 크기는 자기 머리에 꼭 맞게 할 것.
4. 쨌편이 녹나지 않은 것을 사용할 것.
5. 자기 학교 쨌의 프라이드를 가질 것.
6. 항상 책임의 상징이 머리 위에 있는 것을 잊지 말 것.

◇ 유니폼 ◇

1. 유니폼은 직업적 위신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2. 유니폼은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자담하는 제도가 좋다.

① 기관에서 제공되던 몸에 맞기 어렵다.

② 모양도 자유로 선택할 수 없다.

③ 유니폼 수호에도 제한을 받는다.

④ 베로는 예진것을 입게 된다.

3. 항상 정한 유니폼을 입도록 유의해야 한다.
4. 꼭 맞는 것으로 잘 데려서 입어야 한다.

5. 항상 여벌을 준비하였다가 필요시에는 속히 갈아 입도록 한다.

6. 풀이 죽거나 국입살이 있는 유니폼은 위신이 없어 보인다.

7. 양말을 신으면 자기를 보호하며 또 예의스려워 보인다.

① 근무중에 양말을 신는 것은 직업적 위신을 높여 준다.

② 이것을 신음으로 완전한 복장 차림이 된다.

③ 양말은 매일 빨아 신어야 한다.

④ 양말색은 주로 백색이 좋고 다음은 로는 갈색이 좋다.

⑤ 양말 뒷줄은 항상 똑 바로 하고 또 잘 올려신어야 모양이 있어 보인다.

◇ 구 두 ◇

1. 구두는 발이 편한 것을 선택한다. 8 시간 이상 신고 서서 일을 할 때 신는 구두는 가볍고 발이 편해야 일을 잘 할 수 있다.

2. 모양은 단순한것이 절잖아 보이며 빛 같은 백색이 제일 적합하다.

3. 굽이 얇고 소리가 안나는 신이려야 한다.

4. 근무가 끝나면 골 발을 씻고 신을 다 른 것으로 바꾸어 신어야 피곤을 풀게 된다.